

## “제조업 노사관계 큰 그림 그리자”, 금속노조 노정교섭 제안

16일, 새해 투쟁 선포 기자회견...24일 투쟁 선포식, 구조조정 중단 등 3대 요구 청와대 전달



금속노조가 ▲구조조정 중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약법 철폐와 노조 할 권리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제조업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정대화를 제안했다.

노조는 1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8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노사관계는 민주화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벌어지는 제조업 구조조정 중단과 제조업 노사관계 민주적 재정립을 위한 책임 있는 노정대화를 벌이자”라고 제안했다.

노조는 1월 24일 광화문에서 구조조정 저지 투쟁 중인 금호타이어지회 3천여 명 등 조합원 5천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2018년 투쟁 선포식’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금속노조의 대화 요구를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배수의 진을 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신년 투쟁 선포식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구조조정 저지 투쟁 중인 사업장 대표자들이 참가해 무능한 경영진과 무자비한 채권단, 무대책 정부를 비판했다.

정송강 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극성지회장은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노동자 임금 5천억 원이 삭감됐지만 우리는 밤낮없이 일해 1조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지적했다. 정송강 지회장은 “금호타이어는 다시 자율협약이라는 구조조정에 놓여있고 사측은 30% 임금 삭감과 191명을 정리하고 하려 한다”라고 분노했다.

홍성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조선업 회생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생색내기 위한 정책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조선소 노동자가 참여하는 육성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조합원 80%가 장기휴업에 들어간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박경택 수석부지회장은 “정부가 기업 재평가 이후로 정부 대책 발표를 미루는 바람에 작업 중이던 물량마저 중단됐다. 수주를 벌이던 12척마저 수출입은행의 통제와 선주들의 불안감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라며 “무자비한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는 대통령 기자회견 문에만 있다.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다. 봄은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지 않는다”라며 “금속노조는 노정교섭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이다. 정부도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완성차지부 임단협 교섭 마무리국면

하부영 지부장, “주 52시간제 선도 도입 고용 지킨다” ..강상호 지부장, “동종사 임금 차별 정책 무너뜨렸다”



해를 넘긴 금속노조 완성차지부의 2017년 단체교섭이 마무리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는 1월 16일 공고문을 통해 15일 해고자복직 등을 포함한 2차 의견일치안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투표자 대비 61.06%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16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임금동결 압력과 사측의 그룹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과거보다 임금인상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임금성에 가려진 의미 있는 합의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불법파견 노동자 특별고용 기존 6천 명 합의에 이은 2021년까지 3천500명 특별고용, 사내하도급과 촉탁계약직을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합의안이다.

둘째,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

고발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합의와 미복직 해고자에 관한 단초마련 ▲조합 전임자 4명 추가 확보로 조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셋째, 현대차 사측이 제시한 ▲기존 신임금체계 방식을 폐기하고 조합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방안 마련 후 노사 합의 ▲완전 8/8 주간 연속 2교대제 관련 생산량과 임금 보전 철저 검증 후 노사 합의로 시행 등이다.

하부영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새 집행부에 대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2017년 투쟁을 반면교사 삼아 2018년 투쟁에서 반드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며 “현대차지부가 주 52시간제를 선도해서 도입해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키고, 주간연속 2교대제 완성 등 2018년 임투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1월 15일 27차 단체교섭에서 의견일치안을 마련했다.

임금성 부분은 ▲기본급 58,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00% + 32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 원 포함)이며, 별도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적용 관련 2018년 상반기까지 합리적 임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사내하도급 관련 특별합의 ▲장기부재자 대응인원 확대 총원(정규직) ▲사회공헌기금 20억 원 출연 ▲정년퇴직자 비전제시와 제2의 삶 지원을 위한 별도 합의 ▲조합전임자 2명 확대에 합의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기아차만의 자율교섭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017년 단체교섭에 매진하여 동종사 임금 차별 정책은 무너뜨렸지만, 별도 요구안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며 “2017년 임투에서 해결하지 못한 요구안 중에서 통상임금, 완전 8/8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각종 단협 위반 문제 해결은 2018년 안에 꼭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1월 18일 2017년 임금협상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를 실시한다.